

영국 수상 윈스턴 처칠

- 처칠은 늦잠 자는 버릇 때문에 화제에 오른 인물이기도 했다. 그래서 처칠에게는 파이프 담배와 위스키 그리고 늦잠의 닉네임이 붙어 있다. 어느날 한 야당원이 이를 비난하고 나섰다.

“국민들은 늦잠자는 정치인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이 말을 들은 처칠은 이렇게 응수했다.

“글쎄요. 아마 당신도 나처럼 예쁜 여자와 함께 산다면 아침에 일찍 일어나지는 못할 거요.:

-처칠이 이끄는 보수당이 총선에서 패해서 수상 자리가 노동당 당수인 애틀리에게 넘어갔을 때였다. 애틀리는 집권하자마자 대기업의 국유화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천했고, 의회는 이를 둘러싼 여야 간의 대립으로 난상토론을 했다. 국유화에 대한 논쟁이 한창 가열 중이던 어느 날 휴식 시간에 처칠이 화장실에 들렀다. 그런데 화장실은 의원들로 만원이었다. 오직 하나, 애틀리 옆자리가 비어 있었다. 그러나 처칠은 그 자리에서 소변을 보지 않고 다른 자리가 날 때까지 기다렸다. 그러자 애틀리가 처칠에게 말했다.

”제 옆에 빈 자리가 있는데 왜 가만히 계시죠? 나한테 무슨 감정이라도 있으십니까?“

”그렇리가요?“

처칠이 대답했다.

”당신 옆자리에 가려니까 괜히 겁이 납니다. 당신은 뭐든지 큰 것만 보면 국유화를 하자고 해서. 혹시 제 것을 보고 국유화하자고 할까봐 겁이 납니다.“

- 어느 날 처칠이 의회에서 한 의원으로부터 실책에 대해 호된 추궁을 받았다. 의원의 발언은 듣기가 민망할 정도로 너무나 원색적이었다. 끝까지 말없이 듣고 있던 처칠은 그 의원의 발언이 끝나자 연단으로 내려가서 이렇게 말했다.

”이 밖에도 많은 잘못을 저질렀는데 아마 대부분 모르고 있을 것입니다.“

- 처칠이 언젠가 캐나다를 방문하여 환영식에 참석하게 되었다. 그런 그의 옆자리에는 목사 한 분이 있었다. 여직원이 와인을 들고 그들에게 나타났다. 그녀는 처칠에게 한 잔, 목사에게 한 잔을 권했다. 처칠은 잔을 받아 마셨지만 그 목사는 술을 보더니 이렇게 거절했다.

”아가씨, 술과 간음 중에 하나만 택하라면 나는 간음을 택하겠소.“

자신은 술을 먹지 않는다는 것을 강조한 것이다. 처칠은 잠시 머뭇거리더니 이렇게 말했다.

”아가씨, 이리 와봐요. 내가 다른 걸 택해도 되는 줄 몰랐네요.“